



## '홍콩' 중국보다 큰 녹용수출국(?) 생산 없는데 수출은 증가, 제 3국산 '세탁' 역할 의혹



▲북미산 녹용이 홍콩을 통해 세탁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은 관세청에서 압수한 불법 유통 외산 생녹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에 의거 수입 금지되어 있는 북미(미국·캐나다)산 녹용이 제 3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7면).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수근)는 지난해 녹용생산 실적의 거의 없는 홍콩으로부터 1만6천7백5kg(3백7만6천달러 어치)이 수입된 것은 불법 원산지 변조를 거친 북미 지역산 녹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

적했다. 협회는 특히 수입 실적이 전무했던 홍콩산 녹용이 북미지역산 녹용 수입금지 조치 직후인 2002년부터 국내로 수입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홍콩으로부터의 녹용수입은 2002년 1만9천7백kg, 2003년 1만4천3백kg, 그리고 2004년 1만6천7백kg 등이다. 이 같은 실적은 매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건녹용량의 17.8%, 15.8%, 12.2%에 각각 해당되는 량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뉴질

랜드,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입실적을 보였으며, 중국의 1만5천8백kg를 앞질렀다.

양록협회는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북한산으로 표시돼 수입됐던 녹용 7천kg도 북미 지역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녹용을 수입한 업자는 경찰청 수사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록협회는 홍콩으로부터 많은 량의 녹용이 수입되고 있는 것은, 캐나다 녹용 수출업자들이 지난 2002년 제3국을 통해 합법적 녹용수입이 가능하다며 경매에 참여할 것을 공공연히 제안했던 상황과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식약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북미 지역산 녹용 원산지 변조수입 사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알림

그 동안 격월간 발행되던 회보 <한국양록>이 이번 호부터 매월 발행됩니다. 또 4X6배판 잡지형태 판형에서 타블로이드판 신문형태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회보 <한국양록>은 사슴 사육기술 및 유통정보, 해외 양록업 동향, 본회 회무 추진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작비 부담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제 때 발간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본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제 3차 이사회에서 제작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원들에게는 신속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판형 및 간별 조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말일 자 24면으로 발행되어 회원들에게 우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호는 시범판으로 16면만 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회보 <한국양록>이 보다 알찬 내용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투고를 기다립니다 : 기사소재, 시·수필 등 문학작품, 보기 좋은 사슴사진 등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 (02)969-6600

“국산녹용 애용하여, 외화낭비 억제하자”

축종과 사육방법에 따라 철망도 다릅니다. 당시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한 철망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사용 철망생산  
시슴, 곰, 타조,  
염소 방목장망,  
견사/돈사 바닥망

유성철강  
YOOSUNG WIRE NET CO.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15  
TEL : (053)6 11-4437~9  
야간 : (053)6 34-4374